

## 대동물 진료체계 개선 제언 -젓소의 정기계약 진료-

김 학 재

### 대동물 진료체계 개선안

년전에 낙농지도원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어느 강사가 수의사(대동물 임상수의사)는 양축가에게 진료비만을 축내게하는 부류로 매도하는 강의로 수강생들로 부터 공감을 얻은 것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다. 그 강사는 지도원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축가를 교육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내용의 강의를 양축가에게도 할 것이며 그때마다 양축가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임상수의사는 양축가로 하여금 그가 사육하는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진료비 수입을 추구하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기만 하기때문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 주장에 즉각 반박논리로 반격치 못한 것은 본인의 무능함과 용기가 없어서였음을 고백하며 한편으로는 그런말을 들어야할 점도 있음을 반성하고 개선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된다.

수의사는 위생적인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으로 국민의 보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동물을 질병에 의한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로 그 생산성을 증진하는 것이 책무라고 알고 있다. 후자와 관련된 임상수의사의 경우 특히 대동물 임상수의사는 그 강사가 말한 것과 같이 질병예방과 생산성 증진에 필요한 지

도에 등한하여 그 강사가 한것과 같은 비난을 들어도 마땅한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며, 실제로 본인은 양축가가 직접 임상수의사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평과 비난을 양축가로부터 많이 들어 왔으며 그때마다 곤혹스러움을 느껴왔었다. 물론 양축가의 주장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더라도 가장 원만한 동반자의 입장이 되어야할 수의사와 양축가사이가 시정,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젓소의 정기 계약진료를 간략하게 소개코자 한다. 본고는 낙농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내용중 관련용어도 낙농에만 국한하여 주기바란다.

### 1. 현행 진료체계의 문제점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진료체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행위중 예방진료나 진료에 관련된 지도활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주고 받지 않고 있으며 치료활동에 대한 보수만을 진료비로 상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료 관행이요 진료체계로 이러한 진료체계로는 진료활동중 가장 중요시되어야할 예방진료와 지도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 2. 진료체계의 개선

현행의 치료목적 진료위주의 진료체계를 예방진료와 지도위주의 진료체계로 바꾸어 경제성 동물인 가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야할 것이며

\* 서울우유협동조합 진료위생과

그것이 수의사의 책무라는 사고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출장진료와 지도가 가능하게 하였다. 다시말해 예방진료와 지도를 진료활동으로 양축가와 수의사가 상호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 3. 젓소 정기 계약진료 내용 요약

가. 양축가는 총유대(원유대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진료비로 수의사에 지급하고 진료에 관한 수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다.

나. 수의사는 목장의 납유량에 따라 20일에 1회 내지 10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왕진하며 번식관련 제질병의 진료와 진료지도에 대한 진료비(약품대 등 제비용 포함)는 계약진료비로 같음하여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 “나항”이외의 진료시는 정액화된 진료비(약정서로 약정되었으며 통상진료비의 1/3~1/2 수준임)를 적용한다.

### 4. 기대 효과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 축산(낙농)생산성을 극대화 한다. 낙농현안의 가장 큰 문제점인 번식장애의 해결과 질병의 예방 또는 조기치료로 젓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의사의 업권보호와 신뢰성 제고

현행 진료체계(치료위주 진료 = 왕진요청에 의한 진료)하에서는 양축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실제는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지만)자가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가진료의 성행은 수의사의 업권축소와 그에 따른 진료단가의 상승 또 그 반작용으로 자가진료를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리라 생각한다. 계약진료는 수의사의 안정적 수입보장과 계획적진료에 의한 생산성증대와 양축가의 비경제적이고 불필요한 자가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따른 생산성향상으로 상호신뢰와 협조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다.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

자가진료에 따른 약물의 오·남용은 양축가에 게 경제적손실을 줄뿐만 아니라 관련 축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여 축산발전을 저해할 것인바 이러한 위협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

라. 수의술의 발전을 돕는다.

한목장 또는 한개체에 대한 보다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정성을 쏟을 수 있어 진료술의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계약진료 시행상의 문제점

상기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계약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우유에서는 지난 '88년부터 기초자료의 수집, 선진국의 사례조사와 시험용 등을 거쳐 '9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그간에도 겪었고 본격시행코자 하는 현시점에서조차 봉착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하나는 양축가의 “수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수의사들에게 있는 문제점으로 자유로운 현진료체계에서 규칙적인 진료를 하게끔 규정된 계약진료를 수용하는데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 양축가는 부담의 최소화를 수의사는 수입의 최대화를 원하고 있어 이의 조화가 쉽지않은 점도 문제점이라 하겠다.

## 결 어

경쟁산업으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낙농산업과 관련된 대동물 임상도 시대적 요청과 수의사의 본분을 다한다는 사명감에서도 진료체계의 개선은 당위성과 필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계약진료가 그리쉽사리 뿌리를 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완벽한 이상적인 개선안이라고 주장은 않겠으나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감히 제언하는 바로 선배제현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